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2월 21일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 거주 기간 연장을 발표하다

뉴욕주가 임시 보호소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14일 연장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요청에 따라 FEMA(연방 비상관리국)가 임시 보호시설 지원 프로그램(TSA)의 14일 연장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허리케인 Sandy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피해자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호텔 또는 모텔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TSA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새로운 체크인 날짜는 **2013년 3월 10일**입니다. FEMA는 연장 대상 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체크인 날짜를 통지할 것입니다.

“임시 보호시설 지원 프로그램은 허리케인 Sandy 피해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커들이 필요로 하는 한 FEMA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이 장기 숙소 계획을 마련하는 동안 가족들을 호텔에 배치하는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임시 보호시설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가 되려면 먼저 다음 방식으로 FEMA를 통해 연방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www.DisasterAssistance.gov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 FEMA 앱을 사용하거나 m.fema.gov을 방문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등록, 또는
- **800-621-FEMA(3362)**(TTY 800-462-7585)에 전화하여 등록. 711 또는 VRS(Video Relay Service)를 이용하려면 800-621-3362로 전화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